

## 뉴욕·워싱턴서 인턴 근무를 ?

- 세스나그룹, 미국기업에 인턴 소개-

‘해외에서도 청년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다.’

세스나 리쿠르팅 그룹(대표 김성민)은 국내 인턴 인력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대형유통, 의류패션, 전기전자, IT(정보통신), 자동차, 전문직 등 한인기업과 미국기업 등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경제, 회계학, 법학, IT, 기계공학, 전자공학, 물류관리, 마케팅, 건축토목, 디자인, 의류패션, 관광학 등의 전공분야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대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을 채용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인턴들의 근무기간은 1년 이며 , 최장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현지면접,비자발급,적응교육,입국, 주거소개 절차 등 제반 절차는 세스나 인턴부문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번 인턴으로 미국에 오게 될 청년인재들은 J1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기간 동안 우수인재로 판단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미국내 정식채용을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스나그룹이 미국내 운영중인 5개 지점망과 한국본사와 합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진행절차를 해결했다.

한국의 인턴지원자와 미국내 한인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한인 경제가 부흥되는 상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턴부문은 현재 한양대, 인하대, 한성대, 숙명여대 등 10여개 이상의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오는 4월경 1000여명의 지원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선발된 인재를 빠르면 오는 8월경 미국 전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민 대표는 “미국내 한인 기업은 경제난에 따른 인력감원 등의 조치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근무 강도가 금융위기 이전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번 대졸인턴을 활용한다면 재미기업의 기업경영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 3월 2일 (월) 파이낸셜뉴스 차석록기자